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52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11월 30일(화)

2021년 정기총회는 12월 중 '서면결의' 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서면결의 통지서'로 표결

대중회는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컨벤션웨딩홀에서 제69회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유보한 2021년 제51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1년 '정기총회 서면결의 통지서'를 받은 전국 일가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회는 2021년 사업계획 중 4세조 청성백(휘 덕부) 묘소 안내석 설치, 2

세조 합문지후공 묘소를 찾아 수호하는데 공적을 남기신 죽계공(휘 규)공 적비 건립 등 13상신숭조사업, 2022년 달력 제작과 배부, 2022학년도 청심장학생 선발공고 등 대부분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가분들께서 14, 15면에 게재한 2021년 정기총회 요약 자료(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나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찬반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결정한 대중회 이사회(11월 26일)

2021년도 서면결의 정기총회 개최 안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2021년 11월 26일 개최한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1년도 제51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총회'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일가들이 다 함께 모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총회를 '서면결의 총회'로 대체키로 한 것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결의 총회는 일가들의 건강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부의 안전에 대한 '서면결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서면결의 총회기간 : 2021.12.14.(화)~12.24.(금)
- 서면결의 절차 및 방법

 1. 정기총회(서면결의)자료 검토
 2. 「서면결의 통지서」 작성

-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란에 “○” 표기
 - 성명 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날인(도장 또는 사인)
3. 서면결의서 제출 (종보에 동봉한 회신 봉투 이용)
가. 제출기간 : 2021.12.14(화)~12.24(금)
나. 제출방법
- ① 우편(서울 중구 을지로30길47)
 - ② 팩스 (02-2269-7755)
 - ③ 메일(set217@naver.com) -스캔 파일

4. 참고사항
- 정기총회 부의 안건은 2021.11.26.개최한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 「정기총회 회의자료」와 「서면결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분은 대중회 홈페이지에서 회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양식을 출력해서 찬반 표기를 한 뒤 보내 주셔도 유효합니다.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沈영감 심민섭



2021년을 보내며... 위원장들의 송년사

임인년 호랑이의 해, 호랑이처럼 힘찬 출발을

내년에 대종회 백년대계를 위한 재산운용방안 마련

2021년은 대종회의 재산을 효율적·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원년입니다. 대종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부동산을 현지 실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임인년에는 현장답사로 얻은 기초자료와 정보기술을 접목한 '대종회 백년대계를 위한 재산운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조 재산관리위원장

최선 다한 한 해...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주는 일가들이 되길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며칠 남겨두고 일가님 모두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이 계셔서 한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대종회 골프회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협조하며,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는 좋은 일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일가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심재안 골프회장

내년에도 13상신승조사업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

올 한해는 영의정 심순택 선조 평택 묘소 정화사업 추진, 4세조 청성백(휘 덕부) 할아버지 연천 묘소 안내석 건립 및 진포대첩 '도원수 심덕부 동상' 건립 협의 등 13상신승조사업을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13상신을 비롯한 선조님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외 30만 청송심씨 후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심문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재득 13상신승조사업위원장

현재공 심사정 할아버지의 맹호도가 모든 재앙 물리쳐주길

2022년도 沈門달력은 조선왕조 최고의 호랑이 그림 맹호도(猛虎圖)를 그린 선비화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 1707~1769) 할아버지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공 할아버지의 뜻처럼 임인년 새해에는 샷된 것을 쫓아주는 맹호가 우리 심문의 수호신으로서 삼재나 질병 등 모든 재앙으로부터 일가님들을 보호해주길 기원합니다.



심익섭 沈門달력디자인위원장

2022년 2월 제4기 장학생 선발에 영재들 많이 추천해 주시길

임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심문의 모든 가정이 기호지세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행복과 발전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심장학회가 발족된 지 4년째가 됩니다. 장학회가 우리 심문과 국가사회의 자랑스러운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로 예정한 제4기 장학생 모집에 관심을 갖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앞으로도 장학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17세 사빈공(휘 道淸)》

2子 위창(渭昌) 선조 후손을 찾습니다!

※ 찾는사람 : 47년생 日輔, 46년생 孝輔, 49년생 悌輔, 54년생 忠輔, 51년생 連輔, 54년생 仁輔, 49년생 允輔 일가분 등

집안 종사 등 협의를 위해 위창 선조 직계후손을 찾고 있으니 연락처를 아시는 분께서는 (주) 우리 대표이사 심재섭 (하동 출생, 서울 거주, 010-9162-7000) 일가분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기사》

종보 제149호(2021.5.31) 12면 춘향헌성금 내역

시조 청송 춘향헌성금 : 악은공중회장 30만원
→ 심동섭(진주)

4세조 청송 악은공 헌성금 : 악은공중회장 30만원
→ 심동섭(진주)

종보 제150호(2021.7.31) 11면 지파중회 분포 지도 중

- 산청목공중회(경남 산청군) → 산청 목공중회(경남 산청군)

- 목곡문중(경남 산청시) → 판사공중회(경남 산청군)

- 경남 냉정문중(경남 사천시) → 경남 냉정문중(경남 진주시)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 -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전통의 향토기업 경영인에서 인천의 대표 기업가로

개인과 기업이 모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착한 기업으로 유명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한다. 창업한 지 70년이 넘는 인천의 공성운수(주)는 수성을 넘어 존경을 받는 향토기업이다. 이 기업은 경영만이 아니라 이

웃사랑으로도 유명하다. 공성운수의 대표로 인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심재선 일가를 만나봤다.



심재선 일가는 올 3월 제24대 인천상의 회장에 취임했다.

- 앞으로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둘 생각인지.

“내년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도 있을

생산성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해 보류했던 채용과 투자 확대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 공성운수는 인천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까.

“공성운수(주)는 1951년 9월 설립한 화물운송 기업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평택항 군산항 등 전국 부두를 기반으로 수출입 물류를 운송하고 있는 70년이 넘는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곡물과 사료 운송을 전문으로 하다가 영역을 확장하여 철강, 컨테이너 등 육상운송을 주 업역으로 하는 물류전문회사입니다. 1976년 한국차량을 인수하여 1급 정비면허를 취득해서 육상운송차량 운행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고, 1995년 공성주유소를 설립해 육상운송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아너소사이어티에, 기업은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나눔과 관련한 특별한 경영철학이라도 있나요.

“기업활동이든 사회 생활이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웃, 지역주민 더 나아가 국민이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위와 이웃에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의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청송심씨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심문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저 역시 조상의 음덕으로 나름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중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중의 전통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와 이웃에 덕을 베풀며 자기 발전에 매진하고, 문중 모임 등에 자주 참석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중뿐 아니라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선 회장이 걸어온 길

- 인천 출생
- 중앙대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공성운수(주) 대표이사
- 지에스로지스틱 대표이사
- 공성실업 대표이사
- 제이앤에스로지스틱 대표이사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전)
-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전)
- 인천 송도중고 총동창회 회장(전)
- 인천광역시 상공회의소 회장(현)
-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장(현)
- 인천광역시 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부회장(현)

것입니다. 먼저 2022년 새롭게 출범할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건의, 조사, 정책 발굴 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전략산업인 제조업, 공항, 항만, 물류산업 발전과 바이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의 현안 상황을 파악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회원사와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또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및 기술 경쟁력 창출 지원, 기업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 해외관로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 내 친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인천글로벌 마케팅센터·산업단지융복합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방역이 11월부터 완화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고 한계상황까지 몰린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대면 서비스가 일부라도 가능해져 소비가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가 다가오며 인천공항의 여객수도 증가하고 있어 공항 및 연관 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년간 모든 비즈니스가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 올해 인천상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연말을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회장 자리를 맡은 후 어느새 8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장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인 공항 항만 물류 바이오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 중 ‘인천 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창립해 공항 관련 경제권이 확장하도록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해 기업들과 힘을 모아 해수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재선 일가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회장으로 취임했다. 왼쪽이 심재선 회장.

2022년 심문 달력 제작 후기

“힘들었지만 뿌듯...13상신 초상화로 달력 만들 날 왔으면”

2022년 달력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할아버지의 명작 13점을 엄선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이신 선조님의 명작으로 제작했기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일가분들께서도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6월 9일 2022년 달력디자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격렬한 토론 끝에 현재 할아버지의 작품으로 달력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작 13점을 선정하고 확보하게 된 것은 모든 위원들의 해안과 합심의 결과입니다.

우선, 다양한 위원회를 경험한 동국대 명예교수 심익섭 위원장은 각 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한국화 화가 심보경 위원은 달력에 쓸 작품 13점을 소장한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각 작품의 해설 작업도 맡았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미술계의 기둥인 수원대 교수 심영철 위원은 미술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명작의 원본 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선명한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작품 해설 등을 대중회 관계자 등에게 회람시켜 더 완벽한 달력을 만들도록 한 것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재금 위원은 김포한강 신협본점을 회의장으로 제공하고, 김포의 심문 역사를 설명해 주는 등 모든 위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을 지내신 자랑스러운 13상신 선조님의 초상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지파중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대목이고, 13상신 초상화로 달력을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심문달력디자인위원회)



2022년 달력디자인위원회 회의(9월 14일)



6월29일 심재금 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포한강신협 본점에서 열린 2022년 달력 디자인심사위원회의. 왼쪽부터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심은석 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재금 김포한강신협본점 이사장,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심보경 한국화 화가, 심주걸 前 국정원 고위공무원, 심재근 前 대중회 총무이사, 심인구 도예명인

2022년 심문달력 제작을 도와주신 고마운 일가분들

(주) 선 광

항만물류

회장 심 장 식

TEL. 032) 880-6500

(주) 경우크린텍

회장 심 상 조

TEL. 02) 832-9955

SP (주)에스피시스템스

산업용로봇제조업

회장 심 상 균

TEL. 055) 371-5600

(주) 골든포우

회장 심 진 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2 포우빌딩 3층

TEL. 02) 554-4655

(주) 협 동

회장/법학박사 심 상 경

TEL. 043) 537-3700~3

(주) 천연기업

보·차도 경계석, 건축석 생산 및 전문 시공

회장 심 광 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6길18 (삼전솔하임3차 3층)

TEL. 02) 2216-6387~9

(주) 바이오시스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

대표이사 심 광 보

TEL. 053) 853-1002

(주) 청송스틸

지붕개량 / 칼라강판 / 샌드위치판넬

대표이사 심 재 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하오리길 10

TEL. 063) 251-7772

제일영재교육재단

이사장 심 재 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6

TEL. 02) 420-6600

안동선비문화박물관

관장 심 재 덕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49

TEL. 054) 852-4508

대한민국 대표 청각전문기업 스타키그룹

聽

[들음: 청]

프루: 영리함과 깊은 귀 수유: 열개의 눈 —6: 하나의 마음
듣는다는 것은 임금님과 같은 귀로,
열 개의 눈으로 지켜보듯,
상대방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행복, 스타키그룹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업계 유일
충전식 귀속형 보청기,
인공지능 보청기 출시



국내보청기 판매 1위 스타키그룹

N 스타키케어 문의: 02) 465-0999

스타키그룹 : 귀모보청기 | 귀강보청기 | 뉴이어보청기 | 복음보청기 | 소리샘보청기 | 스타키보청기 | 조은소리보청기

청송심씨 대종회

종회탐방 - 광주광역시 두암종회를 찾아서

합동 설 차례, 매년 선조 묘 참배, 공동 묘소...모범 중 모범

도심 속 세거지 500년 지켜온 비결은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라는 일체감



광주광역시 청풍동 묘소에서, 앞줄 왼쪽부터 재평 두암종회 총무, 재평 편집위원, 상역 대중회 문화이사, 헌섭 두암종회 회장, 일구 감사, 민섭 금당산종회 총무이사, 뒷줄 왼쪽부터 동섭 감사, 윤섭 금당산종회 회장, 동선 두암종회 종손, 관섭 청수회 전북 위원장.

1. 광주광역시 속 500년 세거지

두암종회의 뿌리는 12세 훈(訓)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훈 할아버지는 훈도공(訓友賢)의 차남으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1592년 임진란 때 가족과 함께 숙부인 선무공 심우신 장군이 지휘하던 의병훈련소(장성군 삼서면)에 피난 내려오셨다가 지금의 광주광역시 중심지인 북동(옛지명 누항촌)에 정착하셨다. 이후 13세 가선대부(嘉善大夫·휘순성), 14세 의남(義楠), 의숙(義淑), 의청(義淸) 3형제분 자손이 같은 곳에 세거하면서 청송심씨 광주금당산종회와 산하 4개 소종회의 뿌리가 되었다.

그중 두암종회(회장 헌섭·전 고교 교장)는 의청(義淸) 할아버지의 4남이신 15세 영용(瑛容) 할아버지 후손들이다. 종원은 남녀 600여 명으로 1984년 4월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27-2에 문중회관(심항당·누항촌에 있는 심씨 집)을 준공하고 종회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급변하는 도심 속에서 500년 넘게 세거지를 지키고 있다.

2. 대중회가 감사패로 치하한 모범 종회

매년 설 다음 날 종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문중회관에 모여 일가들에게 합동으로 세배를 드린 후 음식도 나누고, 가족들의 소식도 전한다. 학생들에게는 세배돈을, 어르신들에게는 세찬비와 경로금을 드리고, 중·고·대학 신입생에게는 입학축하금도 지급한다. 조상들의 산소 참배와 단합 도모를 위해 버스를 대절해 1박 2일 일정으로 조상들의 숨결이 서린 곳도 방문하고 있다. 2014년 청송을 시작으로 2016년 수원, 2017년 거제도, 2018년 연천을 다녀왔고, 다음 참배지로는 구미 강주부공 시묘암을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에 젊은 종원도 많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다.

선대 송조사업에도 모범적이다. 2001년 전북 익산시 함열에 있는 2세조 합문지후공(淸淵)의 영모재에서 묘소까지 진입로 포장공사(길이 80m, 폭2m,

공사비 1천295만 8천원)를 했으며, 같은 해 10세 곡산공(곡 鏞) 묘소 들레석과 조경사업비 1천268만원을 지원했다. 2010년 경북 구미시 6세조 공숙공(휘 濬) 양부 강주부공의 시묘암 앞 무허가 집 철거 등 정화사업에 1천만 원을 헌성했다. 대중회에는 이런 활동들을 치하하며 2003년 5월 감사패를 수여했다.

3. 일찍이 합동산소 만들어 함께 관리

자녀들이 서울 등 외지로 나가 선조 묘 관리가 어려워진 집안이 많아지자 2000년 당시 회장이던 상팔 일가가 개인 선산을 문중에 내놓으며 “각 집안 별로 관리하는 묘를 모두 이곳에 모으자”고 제안했다. 상팔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에 남아 사는 종원이 누군가는 있을 테니, 모아 놓으면 누가 관리해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묘를 한곳에 모으며 당시 문중 묘로는 과격적으로 봉분을 돋우지 않고 공원묘처럼 평평하고 길게 만들어 묘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했다.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몇 년 전에는 납골평장 가묘도 48기 조성했다. 각 집안의 묘를 한곳에 모으니 성묘도 같이하고, 별초도 같이하게 돼 문중선산은 종원들의 강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종원들은 광주광역시 등에 흩어져 살지만 “살아서는 문중회관에서 만나고, 죽어서는 문중산소에서 영원히 만나자”고 하는데, 선산을 직접 참배해보니 그 표현이 실감 난다.

4. 30년 전부터 문회보(門會報) 발행

두암종회는 1992년 <문회보>를 창간해 2020년에 10호까지 발행했다. <문회보>는 종무활동, 회의록, 결산서 등을 싣고 있다. 이는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종회를 운영하고, 그런 정신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5. 개화기 변화를 이끈 선각자들

종회가 이처럼 번영한 배경에는 대도시인 광주에

터를 잡으신 조상들과 함께 개화기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한 어르신들의 노력이 있다.

덕선 어른은 서당에서 공부도 잘하고 힘도 셧다. 그러나 평소 군것질거리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부잣집 아들이 학생장으로 뽑히는 걸 보고 ‘서당 공부 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양반집 자제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단이었다. 덕선 어른은 포목상으로 입신해 나중에 광주 총장로 상권을 거머쥔 거상이 되었다. 공업인으로는 가내수공업으로 시작해 로케트전지를 만든 호남전기공업 상하 회장, 광주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상회 어른, 누구보다 문중을 사랑하고 종사에 열성이던 상팔 어른, 야구선수로 와세다대를 나와 광주야구협회장을 지낸 양섭 회장 등이 그런 분들이다.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아웅산에서 순직한 심상우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심문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개그맨 심현섭 등 후세들도 다방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이다.

(취재 = 전주 심재열
증보편집위원)



문회보(門會報)



두암종회의 적극적인 종사참여를 치하한 대중회 감사패(2003년 5월)

일가기업탐방 - 충남 예산의 예일레미콘 · 예일아스콘(주)

기술혁신과 품질관리로 충남지역 강소기업 우뚝

심상천 대표 여동생 상미 씨, 흥성서 금당레미콘 창업해 쌍두마차로



심상천 대표

1. 심상천 대표의 경영철학

충남 예산군 봉산면 구암리에 있는 예일레미콘·예일아스콘 주식회사는 심상천 대표가 2007년 설립한 회사다. 레미콘은 지역형 산업이다. 레미콘을 만들어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거리는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일레미콘도 마찬가지다.

심 대표는 지역에 뿌리를 둔 회사를 기술혁신과 품질관리라는 분명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동종업계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키웠다.

심 대표는 예일레미콘이 만든 콘크리트가 프리미엄급 아파트에 들어가 가족의 꿈을 이루는 주거공간이 되고, 고속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변신할 때 커다란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다. 현재 장남 명섭 씨가 경영에 참여해 기술과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

그는 2006년부터 예산지역 권투 꿈나무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기부하고 있고, 예산꿈나눔사랑회 회장과 중앙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2017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가입했다. 예산의 첫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예일레미콘은 지역의 봉림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봉림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구입, 농촌일손돕기, 마을행사 후원, 지역민 채용 등도 실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충남도 내 마당놀이 전문 예술단체인 극단 예촌과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수재민을 위해 컵라면 100상자를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고,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 저소득 가정을 위한 연탄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취재=심종래 중보 편집위원 겸 기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의 예일레미콘·예일아스콘 본사

자매기업 흥성 금당레미콘 여성 CEO 심상미 대표



심상미 대표

레미콘과 여성. 웬지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깨고 레미콘사업에 뛰어든 여성이 있다. 심상미 금당레미콘 대표. 심상천 예일레미콘 대표의 동생이다.

상미 대표는 20~30대엔 농협과 LG생활건강 등에서 다양한 직장경험을 쌓았다. 오빠가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리업무를 도우며 업무 전반을 관리했고, 2013년 예일레미콘 대표이사로 취임해 전문경영인 경험도 쌓았다. 그러다 2020년 충남 흥성에서 금당레미콘을 설립한 것이다.

상미 대표는 여러 경험을 통해 콘크리트는 여성적인 건축 소재로 인식하게 됐다. 그는 “철근이 직선적이고 남성적인 소재라면 콘크리트는 유연하고 여성적인 소재예요. 포용력이 뛰어나고 변화무쌍한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철근에 살을 입혀서 사람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 콘크리트를 다루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CEO의 열정과 경영철학을 보면서 예일레미콘과 금당레미콘이 쌍두마차가 되어 충남지역 레미콘업계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했다.

심상천·상미 남매는 중보취재를 계기로 앞으로 대중회 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2. 예일레미콘의 성공 스토리

예일레미콘의 성공 이유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에 있다. 심 대표는 대전·세종·충남 레미콘협동조합을 통해 일본의 레미콘 기술을 습득하는데 적극적이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미콘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데, 이것이 한국 레미콘 기술 발전에 좋은 샘플이 되고 있다.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예일레미콘의 강점이다. 이를 위해 품질향상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실무책임자 세미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 신기술정보 및 자료 습득, 경제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질인증제 추진, 품질향상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품질관리 전담 직원 배치, 품질경영 의식함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예일레미콘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GR인증(Good Recycled Certification), 고강도 콘크리트 인증, 단체표준인증, KS인증 등을 획득했다.

3.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심 대표는 “나눔은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본인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 1억을 기부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왼쪽부터 심우범 서일대평생교육원 내적치유 주임교수/박사(충남 천안),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상천 대표, 심승섭 한글문자조형작가(충남 예산), 심종래 중보 편집위원 겸 기자.

선조의 숨결을 찾아서

후손들 정성으로 보호해 온 2세조 합문지후공(휘·淵) 묘소

경남 산청서 천하명당 전북 함열로 옮긴 후 온갖 어려움 이겨내며 보존



심재석
역사학자

1. 개경 떠나 산청에 은거한 합문지후공

합문지후 심연(閤門祗侯 沈淵·1287?~1350?)은 청송 심씨 2세조로, 심문의 문벌화를 연 원조(遠祖)이다.

심연은 고려시대 합문지후(조화와 의례 등 국가의식을 맡아보던 합문

소속의 관직·7품)을 지낸 후 몽고(원)의 간섭으로 어지러운 중앙 정치를 떠나 '산음(산청)'에 은거했다. 산청은 합문지후의 모친 함안 조씨의 고향이라고 족보인 <정유보>는 기록하고 있다. 산청은 함안에서 가깝고 합문지후가 어려서 성장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경에서 먼 산청을 택했을 것이다.

지후공은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익재 이제현[益齋 李齊賢·1287~1367]과 친한 사이였다고 하니 그의 학문적 수준도 높았을 것이고, 충의 정신 역시 익재와 닮았을 것이다.

심연은 산음(산청) 현감을 지내지 않았다. 많은 후손이 그렇게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1774년에 처음 간행한 <산청읍지>는 심연이 '출보산음(出補山蔭)', 즉 중앙에서 산음으로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산청에 감무(監務·현감)를 파견한 것은 고려가 망하기 2년 전인 1390년이였다. 지후공은 그보다 40년 전에 별세했으니 산청 감무를 지냈을 리 없고, 1377년에는 묘소까지 함열로 이장했다. 감무는 '합문지후'에 비해 그 지위나 위상도 현격히 떨어지는 자리이다.

심연의 사상은 그가 쓴 시 '안분음(安分吟)'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외부에서 온 손님(내게) 속세의 일을 전하지 마오(外客休傳塵世事)"라고 읊어 속세와는 연을 끊고 유유자적하게 살고자 했다. 그러나 산청군 금서면 왕산(王山)에는 심연이 개경을 바라보며 어지러운 시국을 걱정했다는 '망경대(望京臺)'가 남아 있다. 속세를 떠났다고는 하지만, 늘 고려왕조의 번영을 기원한 충정을 엿볼 수 있다.

심연의 사위 농은 민안부(農隱 閔安富)가 훗날 조선 건국을 반대하며 산청에 은거했다. 그는 처조카인 악은공 심원부(沈元符)와 함께 개성의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산청으로 내려온 것이다. 산청은 민안부의 장인 심연이 은거했던 곳이었기에 민안부



지후공이 개경을 바라보며 나라를 걱정했다는 산청 왕산의 망경대(望京臺·2021년 7월 30일 촬영).



함열 남당산의 합문지후 심연의 묘. 직사각형 봉분은 고려 말기의 양식이다. 봉분 하나의 크기가 6m×8m로, 작은 왕릉을 연상케 한다(2021년 8월 9일 촬영).

부부가 그 인연을 따라 원주를 지나고 지리산을 넘어 산청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고모부인 민안부와 함께 개성의 두문동에 들어갔던 심원부의 자손 중, 심효상, 심태산, 심순 등도 지후공이 은거했던 산청군 석담촌에 거주한 바 있다. 산청을 고향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2. 묘소 이전과 후손들의 정성 어린 관리

심덕부, 심원부 형제가 부친 심룡(沈龍)의 유언을 받들어 심연의 묘소를 경남 산청에서 전북 함열로 천장했으니, 1377년 9월 12일(음력)의 일이다. 이때는 고려 우왕 3년으로 심덕부는 무장(武將)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었고, 악은공 심원부 역시 고위직에 있었다.

함열의 심연 묘소는 임진왜란(1592년) 무렵 실전했다가, 1705년 현재 전북 군산시 임피(臨陂)에 거주하던 죽계공 심규(竹溪公 沈圭)가 찾아냈고, 심중량, 심단, 심상정, 심수현, 심택헌 등 문중의 일가들이 합심 노력 끝에 묘역을 되찾아 1715년에 봉축했다.

1715년에 세운 묘갈은 1720년에 새로 건립했다. 5년 만에 묘갈을 새로 만든 것은 뒷면의 '심중량(沈仲良)' 이름을 누군가 훼손했고, 비석이 새로 놓은 상석(床石)과 크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715년에 세운 비석은 영모재 경내로 옮겨 왔다. 청송심씨대종회(회장 심대평)는 올해 10월 16일 지후공의 묘소를 찾는데 공을 세운 죽계공의 공적비를 영모재 경내에 세웠다.

함열 묘역은 '소헌왕후의 조상 묘'라고 해서 관청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시향 때는 현(縣)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제향을 주관했으며, 일정한 범위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묘소를 개봉(改封)하고 비석을 세운 뒤 후손들은 1910년 무렵까지 탈 없이 제향을 받들어 왔다. 그러

나 1914년에 비석의 글들이 훼손되어 다시 새겼다. 후손들은 1934년 심연이 말년을 보낸 산청군 금서면에 <심연유허비>도 건립했다.

심연 부부의 묘소를 천하명당이라는 함열로 천장한 이후, 경상도 지역의 후손들이 전라도 함열까지 매년 참배하러 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선조에 대한 추모의 정을 금할 길 없던 경남 지역 후손들은 1916년 교통과 회합에 편리한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에 '두산정(杜山亭)'을 건립했다. 이곳에서나마 2세조에 대한 추모의 정을 나눠왔고, 1976년에는 '안분사(安分祠)'도 건축해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1976년에 종토(宗土) 일부가 농지로 개발되자 그 보상금으로 재각을 일신하고, 영모재(永慕齋), 문루, 관사 등 84평의 건물을 새로 짓는 대공사를 벌였다.

3. 미래까지 보존해야 할 한국 최고의 명당

합문지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려 말 풍수지리와 묘소의 이동을 엿볼 수 있고, 고려가 패망하기 전에도 개경 관료가 정치적 혼란을 피해 산청에 낙향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묘를 몰래 쓰는 투장(偷葬)이 심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산송(山訟)이 많았음을 심연 묘소를 되찾는 과정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생을 바쳐 선조 묘소를 찾고 관리한 죽계공 심규와 그 후손들의 노력은 실로 지대하다. 삼가 경의를 표한다.

청송 심씨 문중의 조상 묘 관리와 수호 노력은 최근에도 연면히 이어지고 있다. 1976년 '영모재'를 비롯한 대대적인 재각과 재실의 신축, 대종회의 세심한 묘역 관리와 전국 후손들의 적극적인 시향(時享) 참여가 이를 증명한다. 합문지후공의 묘역은 한국 최고의 명당이자, 심씨 후손들이 지켜야 할 성지(聖地)이다.

심훈기념관 방문 지상 좌담회

심훈의 상록수 정신, 지금도 이어가야 할 심문의 자랑

새마을 정신의 원조라고 할 만...관리는 지자체가 하되 선양은 후손들의 몫

대중회는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 30일 중남 당진에 있는 심훈기념관을 방문했다. 종보는 심훈 선생에 대한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당시 참석자들의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심훈의 상록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참석자〉

- 심대평 (대중회 회장, 전 충남지사)
- 심천보 (심훈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 심장식 (선광 회장)
- 심규선 (중보 편집장,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대기자)
-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겸 대외협력실장)
-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심우신 의병장 15대 종손)

〈글 쓰는 순서〉

1. 심천보 이사장 인터뷰(5월 31일자)
2. 심훈기념관을 찾아서(7월 31일자)
3. 지상 좌담회(이번 호)

-심훈기념관을 찾은 소감을 들려주세요.

대평: 처음 심훈 생가를 찾았을 때가 1988년으로 기억합니다. 임명직 충남지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입니다.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선거를 통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처음 필경사를 방문했을 때 건물은 거의 '퇴락' 상태였습니다. 직계손이 이민 가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심훈 집안의 종손인 천보 이사장이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심재영 고택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훈의 장조카이자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심재영 고택도 미국 교외의 전원처럼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4백 미터 떨어진 필경사도 옛 모습을 찾았고, 기념관과 문학관도 번듯하게 세웠습니다. 심훈기념관은 충청남도가 설립했습니다.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에 노력한 심훈 선생의 상록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당진시가 심훈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보: 심훈기념관은 2014년에 개관했습니다. 당진 시청의 예산으로 매년 심훈상록문화제, 문학제,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심훈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는 1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저도 귀국 이후 서울과 동문 등을 포함해 수백 명의 친지를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심훈상록문화제는 매년 9월 말 당진시청 옆의 상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는 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이 축제를 3일간 계속하는데 매년 전국에서 3천여 명이 모입니다.

-심훈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천보: 저에게 종조부인 심훈 선생은 일제의 어둠 속에서도 독립의 "그날이 오면"을 외친 선각자입니다. 우리에게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지성으로 더욱 맑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상록수를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이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로 문단을 흔들었죠. 직접 영화로 만들려고 단성사를 찾아서 당진에서 서울로 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상록수〉를 출판한 한성도서 2층에서 시나리

오를 썼다고 부친께 들었습니다. 그때가 36세였는데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해방을 못 보시고 작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록수 정신'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통해 농촌 봉사와 계몽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문학의 힘이죠.

장식: 대평 회장께서 함께 가자고 해서 기념관을 찾게 됐습니다. 나중에 가족과 함께 다시 올 생각입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을 강조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번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저희 부친과 숙부가 일구신 선광 주식회사는 인천 해운계에서는 한진이나 대한통운보다 매출액이나 명성에서 더 위에 있는 한국 제1의 해운물류회사입니다. 심훈 선생을 생각하니 저희 조부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일제 강점기에 '소림광업'이라는 명동의 일본인 회사에 근무하던 저희 작은 숙부가 첫 월급을 받아 조부께 돌보기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잘 보여서 좋아했습니다. 조부께서는 어떻게 돌보기를 가져오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숙부가 첫 월급으로 마련했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돌보기를 내던졌습니다. 어떻게 일본회사에서 근무하냐면서요. 그만큼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감을 나타내셨죠. 그런 정신이 바로 심훈 선생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선대 때부터 가족이 힘을 합쳐 선광을 키웠습니다. 조부의 뜻을 기리며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선광문화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 4천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창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심훈기념관 내부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외부가 산만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외부 공사가 끝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임진왜란 진주성 제2차 싸움에서 최후까지 왜군과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진 심우신 의병장의 15대 종손입니다. 지금 곡산공중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곡산공은 10세조인 심수 할아버지입니다. 심우신은 그분의 셋째 아들이셨는데, 김포의 본인 재산과 전남 장성의 처가 재산을 모두 털어서 의병 3000명을 모아 왜군과 격렬하게 싸우셨습니다. 심장군은 나중에 선무원종공신1등에 봉해졌는데, 저희는 1988년에 선무공신과 종중을 만들었어요. 임금께 받은 전남 장성의 사패지(賜牌地)의 3분의 1이 상무대에 수용된 연유로 상무대 정문 우측 경내에 심우신 장군의 동상을 1996년에 건립했습니다. 2016년에는 심우신 장군을 배향한 전남 장성의 표의사 2차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 심훈 기념사업은 대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평: 심훈 기념사업에 대중회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이라는 그분의 업적은 심문의 자랑입니다. 그렇

다고 대중회가 전면에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가 예산과 활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보 위원장을 중심으로 직계 가족들이 이 사업을 진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80세가 넘었고, 상록수 정신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심문의 젊은이들이 나서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훈 기념사업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규선: 심훈 선생의 상록수 정신은 한국인이거나 구나 간직할 만한 합니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새마을운동이 상록수 정신을 벤치마킹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K-정신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침 심훈 선생의 자손과 천보 위원장의 자제가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을 나온 영재들이니 이 작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상익: 심훈 선생께서 1935년 필경사에서 〈상록수〉를 집필했습니다. 그 앞에 기념관과 문학관 그리고 상록수 공원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심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청송심씨 24세손인 선생의 애국정신과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일가분들이 방문하면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살려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면 청송심씨 후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인터뷰 중에 장식 회장께서 심문이 후손을 많이 생산해야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도 생산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심문의 영광이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상의 업적을 선양하고 심문의 친목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는 2022년에는 송조돈목의 정신으로 가족과 함께 심훈기념관을 방문하는 일가들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사회 및 정리 -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6월 30일 심재영(심훈의 장조카) 고택을 방문했을 때 심재영의 흉상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심재철 중보 편집위원, 심대평 대중회장, 심천보 심훈기념관 이사장, 심규선 중보 편집장.

대중회 활동 이모저모

4세조 청성백(휘 德符) 묘소 안내석 제막식 성대히 거행



안내석으로 쓴 자연석 바위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심정환 이지수목원 대표가 기증했다.

4세조 안내석 제막식에 참석한 일가분들

16세조 죽계공 심규 공적비 제막식(10월16일, 함열)



1377년 경남 산청에서 전북 함열로 천장한 2세조 함문지후공 내외분 묘소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약 200여 년 동안 실전되었다. 16세조 죽계공(휘 규)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묘소를 찾아내고 10여 년의 송사까지 거쳐 마침내 1705년 남당산 2세조 함문지후공 묘소를 심문의 것으로 지켜냈다. 대중회는 죽계공의 송조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죽계공 심규 공적비를 함문지후공 재실 내에 건립했다.



죽계공 공적비 제막식에 참가한 일가분들

종보에 소개된 일가와 종회, 기업 등에 기념 액자 전달

심재안 청심장학회 신임 이사에게 기념액자 전달(10월 15일)



액자에는 심재안 이사가 경영하는 제일영재학원과 그의 경영철학을 소개한 종보 기사(7월 31일자 150호)가 들어있다. 왼쪽부터 심상돈 前인권위 국장,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안 청심장학회 이사, 심상조 청심장학회 이사,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대중회 이사 초청 간담회...천연기업 심광부 회장(11월 14일)



액자에는 천연기업을 자랑스러운 일가 기업으로 소개한 종보기사(9월 30일자 151호)가 들어있다. 왼쪽부터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대중회 심규정 재무이사, 심언태 총무이사, 심광부 천연기업 회장, 심상유 일가분, 심판섭 천연기업 부사장.

대중회 회장 내외분 초청..스타키홀 심상돈 회장(21.11.9)



액자에는 심상돈 스타키 회장을 자랑스러운 일가로 소개한 종보 기사(5월 31일자 149호)가 들어있다. 왼쪽부터 곡산공중회 심창선 총무,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심상돈 회장, 심대평 회장 내외분

안효공파 옥현문중에 '종회탐방' 기념액자 전달(11월 23일)



액자에는 옥현문중을 소개한 종보기사(9월 30일자 151호)가 들어있다. 왼쪽부터 포항 시설관리공단 이광희 본부장, 청송중회 심영희, 심상억 대외협력실장, 안효공파옥현문중 총무 심덕보(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북중회 심재중, 심가영 일가분

전국 곳곳서 추향제 · 지파총회

조상님들이여, 절 올리는 후손들을 가호하소서

시조 문림랑공 추향제(10월 14일, 청송)



악은공종회장 겸 대중회 부회장 동섭(진주), 대중회 부회장 능광(청송), 대구총회 훈 회장, 청주총회 상호 회장 등을 비롯하여 대구, 경남, 충북, 청송 등지에서 일가분 30여 명이 참석했다.

2세조 합문지후공 추향제(10월 16일, 함열)



대중회 대평 회장, 의두 고문(전북), 대전·충남·세종총회 회장 겸 대중회 부회장 현근(대전), 전북총회 수영 회장, 청주총회 상호 회장, 13상신송조사업위원회 재덕 위원장, 동서울총회 기섭 총무이사 등 대전, 충북, 전북 등지에서 일가분 30여 명이 참석했다.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추향제(10월 18일, 안성)



도총제공파총회 상현 회장, 효창공종회 홍섭 고문, 청주총회 상호 회장, 도총제공파원주총회 상열 회장, 인수부윤공파총회 재구 총무이사 등 23명이 참석했다.

4세조 청성백 배위 인천문씨 추향제(10월 20일, 연천)



대중회 심대평 회장, 인수부윤공파총회 심정구 회장, 도총제공파총회 심상현 회장, 사인공종회 심양섭 회장, 판관공종회 심상열 회장, 청주총회 심상호 회장, 도총제공파원주총회 심상열 회장, 오산사북시정공종회 심익섭 회장, 우리총회(수도권지역모임) 심재섭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추향제(10월 20일, 연천)



4세조 청성백 배위 청주송씨 추향제(10월 22일, 청주)



도총제공파총회 상현 회장, 판사공종회 오택 前 국무총리비서실장, 청주총회 상호 회장, 대전·세종·충남총회 현근 회장, 도총제공파원주총회 상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5세조 도총제공 배위 신씨 추향제(10월 22일, 청주)



초헌 상현, 아헌 상열, 종헌 재복 일가분이 수고했다.

5세조 인수부윤공(휘 潑) 추향제(10월 22일)



초헌 구형, 아헌 상직, 종헌 명섭 일가분이 수고했다.

6세조 양혜공(휘 石雋) 추향제(10월 25일)



초헌 구형, 아헌 영섭, 종헌 상대 일가분이 수고했다.

7세조 망세정공(휘 瓚) 추향제(10월 28일)



초헌 구형, 아헌 영섭, 종헌 우관 일가분이 수고했다.

14세조 만사공(휘 之源) 추향제(10월 30일)



초헌 구형, 아헌 영섭, 종헌 대식 일가분이 수고했다.

현령공경남총회 정기총회(11월 16일, 경남 산청)



총회는 신임회장으로 심증영, 부회장으로 심재상 일가분을 선출했다. 전임 회장 심한섭, 전임 부회장 심재인 일가분은 3년 동안 현령공경남총회를 이끌었다.

찰방공(휘 약해) 추모비 건립(11월 13일, 경남 김해)



청수회 전북위원회 정기총회(11월 20일, 신안)



제4회 청수회 운영위원회(10월 27일, 안성)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스포츠맨으로, 도민으로, 작가로, 학자로... 곳곳서 수상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 대한민국체육상(10월 15일)



심상경 (주)협동회장(왼쪽), 자랑스러운 모범도민상(10월 26일, 충북도청)



심준섭 사진작가 해양사진대전 대상(10월 29일)



심홍섭 작가 인터뷰 (11월 4일자, 광남일보)



심홍섭 시인은 “향후 2층 규모의 창작연구소를 오픈해 작가들이 편하게 차도 마시면서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시인의 집’이라는 문패를 걸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싶다” 고 말했다.

◀ 심금섭 연암대 교수(왼쪽), 한국양돈대상(10월 20일)

청송심씨 서각 작가 작품 소개

심재봉 작가, 연천 청성백(휘 덕부) 재실 주련(柱聯) 제작



심용섭 한글문자조형작가 (예산, 늘빛한글문자조형박물관), 전국 검찰청 「검사 선서」 제작



심재성 수찬공중회 총무(前 광명시국장), 소나무 서각



光石 심상직(전 대구 성서우체국장) 대한민국 각자대전 입상(德不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로가수 심연옥

원로 가수 심연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대중음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심연옥은 11월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7년 KPK 약단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한강', '전화통신', '도라지 맘보', '시골버스 여자장' 등의 히트곡을 냈다. 특히 1952년 김백희의 '안해의 노래'를 극작가 유호가 개사한 '아내의 노래'를 발표해 큰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 '투란도트(1948)', '카르멘 환상곡(1949)', '로미오와 줄리엣(1950)' 등의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재미경영학자심정필 교수

대구 출신 재미 경영학자 심정필 조지아주립대 교수가 미국 애틀랜타 자택에서 22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심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위스콘신대, 미시시피주립대 교수를 거쳐 조지아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과 전 세계 정부, 대학, 기업에서 350회 이상 초청 강연과 경영자문을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심 교수는 시조문학의 대가인 국문학자 모산 심재완 박사의 차남이다.

2021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 〈한국광해광업공단〉 (9월 13일자)
 - ◊ 처 · 실장급 ▲사업관리실장 심권용
- 〈공정거래위원회〉 (9월 14일자)
 - ◊ 과장급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심재식
- 〈국토교통부〉 (10월 7일자)
 - ◊ 과장급 전보 ▲ 항공산업과장 심지영
- 〈청송군〉 (10월 15일자)

- ◊ 5급 승진 ▲안전재난건설과 심부섭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10월 23일자)
 - ◊ 상무승진 ▲심성우 심창영
- 〈보건복지부〉 (10월 29일자)
 - ◊ 과장급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심은혜
- 〈공정거래위원회〉 (11월 7일자)
 - ◊ 과장급 전보 ▲송무담당관 심주은

- 〈국세청〉 (11월 16일자)
 - ◊ 6급이하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심아미 세무6 ▲은평세무서 심수연 세무8 ▲영등포세무서 심윤보 세무8 ▲반포세무서 심수민 세무8 ▲동대문세무서 심연택 세무6 ▲경기광주세무서 심규민 세무8 ▲수영세무서 심상형 세무7 ▲울산세무서 심민기 세무7 ▲익산세무서 심혜진 세무8 ▲청주세무서 심준석 세무7 ▲제천세무서 심수현 세무6

재산관리실사 / 장학회

재산관리위원회... 1박2일 전국 종재 실사

청심장학회... 벌써 제4기 장학생 모집

노후 찬경회관 이전과 안성회관 재개발 등 본격 논의 위원장 심상조, 부위원장 심재문 선출



재산관리위원들이 청송 시조묘소 참배 후 종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11월 17일)

대중회 재산관리위원회는 9월 28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심상조 위원(대우 토건 회장)을, 부위원장에 심재문 위원(부사공종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이어 11월 16~17일 1박 2일 동안 시조 문립랑공(휘 洪孚)과 4세조 악은공(휘 元符) 유사가 관리하는 청송 종재, 2세조 함문지후공(휘 淵) 유사가 관리하는 익산 함열 종재,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유사가 관리하는 안성 종재,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유사가 관리하는 연천 종재를 현지 답사했다.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일원의 종재는 최근 주변 토지 개발 붐을 타고 청송심씨안성회관 재개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지역의 현장 답사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 건립과 교통여건 개선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개발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핵심과제는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중부시장 내에 있는 청송심씨 찬경회관 신축이전 문제이다. 대중회가 1994에 입주한 이 건물은 1990년에 완공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대중회 건물은 엘리베이터와 주차시설이 없어 일가분들이 방문할 때 불편하고, 시장 내에 있어 주변환경이 좋지 않으며, 임대부진 등으로 오래전부터 신축 이전 논의가 있었다. 현 건물 매각대금, 보유 현금자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에 따른 종재 수용으로 들어올 자금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축 이전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중회 소유 종재를 타인이 오랜 기간 무단 경작하는 것을 방지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감시하고, 총유물인 위토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종재를 한 치의 손실됨이 없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며 현장실사를 마쳤다.

글로벌 沈門 인재를 찾으려는 노력에 실패는 없다



청심장학회는 3기 장학생으로 15명을 선발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가 선발하는 2022년도 장학생(제4기)에 지원하려면 2022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장학회 사무국(담당이사 심규정 010-9168-3271)에 접수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청송심씨 뿌리정신이 투철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예·체능 특기생 유망주 등 글로벌 인재이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씩 2년에 걸쳐 600만 원을, 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청심장학회는 2019년 10월 5일 제1기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3명, 대학(원)생 7명 등 총 10명, 2020년 6월 13일 제2기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3명, 대학(원)생 7명 등 총 10명, 지난해 4월 17일 제3기 장학생으로 중·고등학생 6명, 대학(원)생 9명 등 총 15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청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재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기 장학생 심하진은 영국 런던정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규제 (MSc Regulation)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인 최초로 영국 금융감독원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공채에 수석합격해 현재 근무 중이다. 제3기 장학생 심준석은 '구속 157km 초고속특급' 야구선수로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올해 봉황대기 교교야구대회에서 덕수고등학교를 15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다.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장학생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 '문중의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더욱 매진해 '문중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청송 심문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특별기고

명문 청송 심문에 시집온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



김영주 (경남 함안 거주·심진식의 처)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세 번의 큰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50년이 된 지금 생각해보니, 전통유가인 김해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그 첫 번째 행운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가락국의 후손이라며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고 예의범절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단속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어렵고 엄격한 교육이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서 청송심씨 양반 가문으로 시집을 간다고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심진식)을 만난 것이 두 번째 큰 행운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성씨만 양반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매사에 근면성실하며 모범적입니다. 청송심씨 종사와 조상을 섬기는 일에도 유별납니다.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나 악은공종회, 현령공종회, 경남종회 등 여러 종회의 일을 맡아 성심성의껏 뛰고 있으니 어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하여 저도 남편과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직장도 종종 일로 매우 바쁘긴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들(태규·24) 하나를 두었는데 이것이 세 번째의 행운이요, 조상님들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근무하는데 착실하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쉬는 날이면 합천의 두산정, 산청의 유허비 등 선조들의 유적지를 즐겨 찾는 것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세 가지의 큰 행운을 모두 차지한 저는 큰 복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그중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은 청송심씨 가문으로 시집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작고하시어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현재 진주노인대학에 다닙니다. 마침 노인대학(재학생 900명)의 학장이 청송심씨인 동섭(대중회 부회장) 학장으로 사위의 대부라서 온 동네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뜻을 같이하며 가정과 직장, 종사(宗事)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제가 받은 행운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청송심문과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그중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은 청송심씨 가문으로 시집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작고하시어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현재 진주노인대학에 다닙니다. 마침 노인대학(재학생 900명)의 학장이 청송심씨인 동섭(대중회 부회장) 학장으로 사위의 대부라서 온 동네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뜻을 같이하며 가정과 직장, 종사(宗事)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제가 받은 행운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청송심문과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그중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은 청송심씨 가문으로 시집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작고하시어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현재 진주노인대학에 다닙니다. 마침 노인대학(재학생 900명)의 학장이 청송심씨인 동섭(대중회 부회장) 학장으로 사위의 대부라서 온 동네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뜻을 같이하며 가정과 직장, 종사(宗事)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제가 받은 행운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청송심문과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그중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은 청송심씨 가문으로 시집온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서 작고하시어 국립대전현충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현재 진주노인대학에 다닙니다. 마침 노인대학(재학생 900명)의 학장이 청송심씨인 동섭(대중회 부회장) 학장으로 사위의 대부라서 온 동네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뜻을 같이하며 가정과 직장, 종사(宗事)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제가 받은 행운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청송심문과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도 정기총회를 대신하는 서면결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이에 부의(附議)합니다.

- 가. 2020년도 사업실적
- 나. 2020년도 결산보고

2021.12.14.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가. 2020년도 사업실적

1. 5처 묘소 및 2단소의 수호 관리

- 시조 묘소 (청송)
 - 시조묘소 진입로 붕괴 등 파손부분 보수
 - 묘역주변 소나무 간벌 등 정비
- 2세조 묘소(함열)
 - 묘역주변 잡목 제거 및 소나무 병·해충 방제
- 3세조 및 배위 묘소(안성)
 - 양위(兩位) 묘역 소나무 가지치기 및 잡목제거
- 4세조 묘소(연천)
 - 진입로 잡목·잡초 제거 등 정비
 - 묘역 소나무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정비
- 4세조 배위 청주송씨 (청주)
 - 묘역 곡담설치
 - 묘역 향토문화재 지정 (2020.7.3.)
- 4세조 악은공 단소 (청송)
 - 경의재 화장실 등 노후된 부속시설 보수

2. 종재 변동사항

가. 안성시 도기동 산57외 1필지

안성시 사적 제536호로 지정된 도기동 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도기동 산57외 1필지)가 수용됨에 따라 2020.6.17. 총 보상금 6,892,471,667원 중 6,433,017,000원 수령
 ※ 안성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459,454,660원은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함

■ 도기동 산성문화재 토지 보상가격

지 번	면 적		감정가 (㎡당)	토지가격(원)
	평방미터	평(坪)		
도기동 산57	49,983㎡	15,120평	131,000	6,547,773,000
도기동 468	1,319㎡	399평	261,333	344,698,667
합 계	51,302㎡	15,519평		6,892,471,667

나. 안성시 현수동 657-7(답)외 5필지 지번 및 지적 변경

- 현수동 농지(답) 경지정리(환지) 및 당왕동 토지(전) 지적 분할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현수동 99-1	1,343	현수동 657-7	1,319.8
111-2	1,450	660-12	1,530.2
257-2	988	622-12	988
258	4,397	622-13	4,397
당왕동 259-14	922	당왕동 259-14	796
		259-19	126

3. 인터넷 족보 수단 추진

청송심문의 혈통과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 등이 수록된 대동세보(족보)를 2016년도에 일제 정비한 이후, 새로 발생한 출생·사망·결혼·이장(移葬)·경력사항 등 신규 또는 변경(수정)사항 등을 새로 등재 정비함.

- 가. 수단 접수기간 : 2020년5월1일~10월30일 (6개월 간)
- 나. 족보열람 및 수정기간 : 2020. 11.1~12.30
- 다. 족보등재 완료 : 2021. 1.31
- 라. 수단 신청자 : 총 2,328명

4. 교육·문화사업

가. 청송심문 달력제작

청송심문의 문화유산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선조님의 향사일정 등 대중화와 지·파종회의 연중 일정이 표기된 달력을 제작하여 전국 일가에 배포.

■ 문화유산 현황

- 찬경루 (讚慶樓) 2019년 12월 30일 보물 제2049호

- 만세루 (萬歲樓)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8호
- 두산정 (杜山亭 2세조 閣門祇候公 재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5호
- 양계사(良溪祠)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에 있는 조선시대 유교사당
- 경의재(景義齋) 청송군 파천면 덕천길 89
- 시묘암 (待墓巖 6세조 恭肅公)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 함허정 (涵虛亭 10세조 訓導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 심훈 상록수 기념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105
- 광교역사공원 경기도 기념물 제53호. 안효공 묘소 일대의 공원
- 심수관 도예전시관 전북 남원시 양림길14-16

■ 카렌다 표기사항

- 음력 표기: 기존 달력 표기기준
- 대중회 및 지·파종회 제향일 표기
- 기타 주요행사일 표기

■ 기대 효과

- 청송심씨 선조의 얼과 유적 등 문화가치 알리기
- 대중회 연중 일정 및 지·파종회 주요행사 공유
- 청송심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종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제고

■ 달력 배부현황

구 분	총부수	지파종회	협찬사/친목회	개인신청	
벽걸이용	6,038	84개	3,710부	16개 350부	605명 1,978부
탁상용	1,000	84개	420부	16개 170부	410명 410부

나. 홍보

- 지면확대 : 8면 → 12면
- 심문의 인재 소개, 기업탐방, 기업광고 등 새로운 기사 등재

5. 특별사업

가. 13相臣 묘역관리 사업

청송심씨를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13성종 선조님의 묘역 중 현재 관리가 미흡하여 보수 등 관리가 시급한 4개 묘소에 대한 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함

1) 현황

世	휘(諱)	관 직	왕 조	묘소	관리처(인)	관리상태
4	덕부(德符) 1328~1401	좌정승	2대정종	연천군 아미리	대 중 회	양호
5	온(溫) 1375~1418	영의정	4대세종	수원시 이의동	안효공종회	양호
6	회(澮) 1418~1493	영의정	7대세조	파주시 영태리	공숙공종회	양호
9	연원(連源) 1491~1558	영의정	13대명종	김포시 옹정리	사인공종회	양호
9	통원(通源) 1499~1572	좌의정	13대명종	포천군 이곡리	좌의정공종회	미흡
11	희수(喜壽) 1548~1622	좌의정	14대선조	고양시 원흥동	효창공종회	양호
12	열(悅) 1569~1646	영의정	16대인조	양평군 세월리	성천부사공종회	양호
13	기원(器遠) 1587~1644	좌의정	16대인조	(안양)	-	실전
14	지원(之源) 1593~1662	영의정	17대효종	파주시 분수리	인수부윤공종회	양호
17	수현(壽賢) 1663~1736	영의정	21대영조	파주시 마장리	후 손	미흡
19	환지(煥之) 1730~1802	영의정	22대정조	용인시	7대 후손 (심천보)	미흡
20	상규(象奎) 1766~1838	영의정	23대순조	풍덕 (개성)	- (북한)	미 상
22	순택(舜澤) 1824~1906	영의정	26대고종	평택시 봉남리	후 손	매우불량

2) 우선 관리대상(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 ①순택(평택) ②수현(파주) ③환지(용인) ④통원(포천)

3) 추진실적(순택선조 묘)

- 2020.6.15 :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및 대책회의 개최
- 위원회 : 위원장 1, 위원 7
- 2020.6.27 : 사업추진단 묘소 현장방문
- 당일 벌초작업 실시
- 2020.7.14 : 제초작업 실시
- 2020.11.13. : 순택선조 후손 대중회 방문
- 향후 묘역 정비 및 문화재 등재 추진에 적극 협조 의사 피력

나. 2020년도 결산보고(홈페이지 참조)

2021년도 정기총회를 대신하는 서면결의 부의 안건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부의안건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설명

정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이에 부의(附議)합니다.

- 가. 2021년도 사업계획안
- 나. 2021년도 예산안

2021.12.14.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2021년도 사업계획안(案)

1. 5차 묘소 및 2단소 수호관리

단위 : 만원

5차묘소	세 부 추 진 계 획	소요예산	사업기간
시조 (청송)	봉분 사초 및 묘전 지반침하 복구 등 정비	1,000	1/4분기
2세조(함열)	재실 단청 등 정비	2,000	9~11월
3세조 및 배위 (안성)	양위(兩位)묘역 소나무 전지(가지치기) 및 진입로 제초 등 정비	300	3월, 9월
4세조 (연천)	재실 바닥 및 창호 등 보수정비, 진입로 및 묘역 잡초 제거 및 소나무, 철쭉 전지	1,500	3월, 9월
4세조 배위 (청주)	소나무 전지 및 묘소 안내판 설치	200	3~9월
4세조 약은공 단소 (청송)	재실(경의재) 도배 및 부속시설 보수 유지관리	500	3~9월
공 통	• 춘·추 시제봉행 • 묘역관리 - 벌초, 제초, 사초, 전지 등	예산안 참 조	3~9월

2. 종재(위토)의 관리

단위 : 만원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소요예산	사업기간
위토(位土) 전수조사	• 점검반 편성 • 전국 위토 현장방문 실태조사 - 토지·건물 유라관리상태 및 임대차 현황 조사 • 종재실사 결과 총회보고	200	9~11월
차명재산 정리	명의신탁 등 차명재산 정리	3,000	3~10월
위토 유지관리	• 상시점검 : 각 지역 유사 • 점검결과 보고 : 매 분기별	별도편성	1~12월

3. 대중회(종보) 홈페이지 개선

지금까지는 대중회(종보)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구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PC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 매우 불편하였으나, 2021. 6. 25. 메뉴 재구성 및 반응형 리디자인 작업을 완료하여 인터넷 신문과 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뿌리탐구 등 모든 정보를 분야별로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함

【예시】인터넷종보 모바일 열람(검색) 방법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청송심씨대중회 우측 끝부분에 있는 메뉴검색 기호(三)를 클릭하여 "인터넷종보(대 메뉴)" >> "인터넷종보검색(소 메뉴)"에서 직접 열람(검색)할 수 있음

4. 2022년도 청송심문 달력 발간

가. 심의위원회 운영

- 목 적 : 2022년 沈門달력 디자인 심의
- 구 성 : 교수, 예술인, 종회임원 등 10명 이내

나. 추진계획(일정)

- ▶ 7.23 :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선조님 유품, 예술품, 휘호 등의 사진을 지·파종회 및 개인 추천 접수
 - ▶ 9. 1~ 9.30 : 수록내용 접수 및 디자인 확정
 - ▶ 10. 1~10.30 : 수요조사 및 인쇄부수 결정
 - ▶ 11월중 : 인쇄 및 배부예정
- ※ 제작부수 : 벽걸이 6,000부, 탁상용 2,000부

5. 특별사업

가. 13相臣 승조사업

1) 순택선조 묘역 관리사업

- 2021.3.25. : 후손과 묘역 사초 및 지방문화재 추진 등 협의
- 2021.6.23. : 묘역 벌초작업 실시
※ 사초 예정이었으나 주변 토지주의 진입로 봉쇄로 후일 도모
- 향후 추진계획
내년도 상반기에 사초할 수 있도록 진입로 주변 토지주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기타 묘역 복원 및 지방문화재 등록도 병행 추진할 계획.

2)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 진포대첩 공적 바로 알리기
진포대첩은 1380년(우왕 6) 8월 고려 수군이 군산 앞바다에서 왜구를 상대로 크게 승리한 해전으로서 정안공 할아버지가 도원수(都元帥)로, 나세(羅世)가 상원수(上元帥)로, 최무선은 부원수(副元帥)로 임명되어 고려 수군이 최초로 승리한 해전임.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군산 진포대첩기념탑』을 건립하였는데, 부원수 최무선은 동상 건립 등 크게 부각되었고, 도원수 정안공 할아버지는 부분적 설명만 가미되어 있어 '정안공 진포대첩 공적 바로 알리기'가 요구됨.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77
- 명칭 : 진포대첩기념탑
- 추진사항
 - ▶ 2016년경 : 임피종회 중심 『심덕부공덕비건립추진위원회』 결성
※ 임피종회에서 운영비 등 약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4년여 전에 재정난으로 현재 중단 상태임.
 - ▶ 대중회 : 13상신 승조사업위원회 2021년도 "사업과제"로 선정
 - ▶ 2021. 4. : 심재웅(前 청심회 회장) 군산 진포대첩기념탑 방문, 공덕비 건립 재추진 논의
 - ▶ 2021. 10 : 2021.9.24. 제2차 회장단회의(서면결의)에서 군산시에 "진포대첩의 유래" 내용 중 왜곡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이와 함께 청성백 선조의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10.27. 군산시 방문 협의 및 건의 - 현재 군산시와 협의 중

※ 수정을 요구한 부분 :

(중략) 이때에 최무선 장군은 나세, 심덕부 등과 더불어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 이때에 최무선 장군은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 등과 더불어 ~ "이하생략"

3) 연천 4세조 묘소 안내석 설치

2021. 7. 22. 개최한 13상신 승조사업 TF에서 연천 4세조 청성백 선조님의 묘소 안내석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묘소 전면 신도비 오른쪽 부근에 안내석을 설치하고, 2021.10. 20. 추향 봉행을 마친 후 제막식을 가짐.

4) 16세조 죽계공(휘: 심규) 공적비 설치

위 TF에서 실현되었던 2세조 합문지후공의 묘를 찾는데 공이 큰 죽계공 심규 선조님의 공적이 후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적비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실 경내에 공적비를 설치하고 2021.10.16. 추향봉행을 마친 후 제막식을 가짐.
※ 연천 4세조 묘소 안내석 및 합열 죽계공 공적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종보 및 홈페이지 참조.

나. 「靑松沈氏大宗會 50年 略史」 발간

- 1) 대중회 연혁
- 2) 대중회 사업실적
 - 묘소수호 및 제향봉행
 - 종중재산관리
 - 교육·문화사업
 - 기타 안성토지 소유권이전 소송 건 등
- 3) 족보등재사업
- 4) 정기총회 자료
 - 년도별 주요내용, 결의사항
 - 참석자 및 수상자 명단
- 5) 대중회 임원명단
- 6) 기타사항
※ "50년약사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

다. 종재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

- 1) 대상 : 안성시 당왕동 산19-9 일원
- 2) 면적 : 총 11,920㎡ (약 3,600평)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당왕동 산19-9	임	9,027㎡	
28번지	전	932㎡	
33번지	대	883㎡	현황(전)
34번지	대	1,078㎡	현황(전)
합 계		11,920㎡	약 3,600평

3) 주변여건

- 서동대로에 인접, 안청중학교 인근
- 고속도로 :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 * 2022년도 안성경유 서울(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예정

4) 세부추진계획

-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및 구성원 선출 (3/4분기)
- 실태조사(현장답사) (4/4분기)
- 사업추진 방향 설정
 - 토지임대, 건물·창고 등 시설물 조성(임대 또는 운용), 기타
 - * 토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
- 사업추진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6.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2014. 9.12.개최한 제3차 회장단 회의에서 대중회 소유재산(명의신탁재산 포함)의 관리업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고, 관련 제반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송심씨재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일부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위원회 구성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재구성의 필요성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21.7.7.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재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은 대중회 홈페이지 참조

공지사항

2022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출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장래성이 유망한 자 - 고등학교1년생 : 중,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 대학(원)생 : 전체 학점 3.8/4.5점 이상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표창 등 실적우수자 (입학성적 우수자 포함) - 특기생 및 일반인 : 국내, 외 수상실적 우수자 또는 유망주 • 특기생은 학교(중, 고교, 대학, 원)나 학년, 분야에 제한 없음 - 특별전형: 소득분위가 낮은(소득3구간 이하) 구간의 탁월한 영재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중학생 우대)	지원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고1년생은 중학교도 제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학교재학증명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 신청 양식은 청심장학회 홈페이지(www.cshim.org) 또는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선발인원	인원 : 10명 내외	제출처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선발대상	중학생(특별전형), 고등학교1년생, 대학(원)생, 특기생 및 일반인	제출기간	2022년 2월 14일~ 2월 28일까지
선발방법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	면접일자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별도 통보)
수혜금액	3백만원~5백만원 (고등학교1년생은 고2, 고3 총2회 장학금 지급)	장학금 수여	2022년 4월 중

2021. 11. 30.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장 심 대 평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종보 제152호(11월) 공지사항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심씨종보는 청송 심문(沈門)의 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2022년도 달력에 미기재 향사(享祀) 일정

일 자	행 사 명	일 자	행 사 명
01월26일 (음 12.24)	5세조 안효공 기신제	9월10일 (음 8.15)	5세조 안효공 추석절사
2월01일 (음 1.01)	5세조 안효공 설절사	10월16일 (음 9.21)	강주부공(구미)
2월12일 (음 1.12)	6세조 공숙공 기신제	11월18일 (음 10.25)	11세조 일송공 영정포쇄사
2월21일 (음 1.21)	11세조 충익공배위 기신제	12월16일 (음 11.23)	삼한국대부인 기신제
6월 03일 (음 5.05)	5세조 안효공 단오절사 안효공종회 정기총회	12월27일 (음 12.05)	11세조 충익공 기신제
6월09일 (음 5.11)	6세조 공숙공배위 기신제		

각종 찬조현황(2021. 9. 16 ~ 2021. 11. 22)

■ 각 50만 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심정보 풍덕공파가선대 부공종회 회장	고심인구 대중회대동세보 편찬회 위원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	심상국 철원종회 회장	심노진 용인종회 회장	심무섭 안효공종회 회장	심상욱 캐나다토론토 중회 회장	심상돈 (주)스타키보청기 그룹 회장	심광부 (주)천연기업 회장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 중회 회장	심재수 여수종회 회장	심윤섭 광주금당산종회 회장	심재열 창원사복시정공 중회 회장	심상호 청주종회 회장	심현섭 광주 두암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7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7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1년8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8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9월	종보/달력찬조 700만원 2021년9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9월	종보찬조 1,100만원 2021년10월	종보/장학찬조 500만원 2021년10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1년10월	종보찬조 60만원 2021년11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9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9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10월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10월
														
심명룡 청헌공파공주중회 회장	심상조 (주)경우크린텍 회장	심재안 송파제일영재학원 이사장	심진섭 (주)골든포우 회장	심대평 청심장학회 회장	심재득 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 위원장	심장식 (주)선광 회장	심광보 (주)바이오시스 대표이사	심재열 (주)청송스틸 대표이사	심재규 대중회 부회장 겸 광주청명회 회장	심말섭 창원남창문중 회장	심지택 곡산공종회 이사	심창섭 청심장학회 감사	심학경 (주)협동 회장	심우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종보찬조 5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500만원 2021년10월	장학찬조 500만원 2021년10월	장학찬조 5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3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10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9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0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0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1월

임원회비

'20년도 이사회비	5만원	인보(충북)
'21년도 부회장회비	30만원	무섭(수원)
'21년도 임원회비	5만원	기섭(서울), 상조(서울), 성기(강원), 재운(대전), 형찬(김포), 정섭(서울), 절보(마산), 규실(마산), 우경(광주), 진식(경남), 재호(안동), 재상(합천), 규성(인천), 재덕(서울), 인보(충북), 삼규(서울), 상영(일산)
'22년도 이사회비	5만원	인보(충북)

장학찬조

500만원	상조((주)경우크린텍 회장), 재안(송파제일영재학원 이사장), 진섭((주)골든포우 회장)
400만원	광부((주)천연기업 회장)
300만원	대평(청심장학회 이사장)
200만원	재득(13상신승조사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식((주)선광 회장), 광보((주)바이오시스 대표이사), 열((주)청송스틸 대표이사)
100만원	광주 청명회원 일동, 창원 남창문중(회장 심말섭), 지택(김포종회), 창섭(청심장학회 감사), 상경((주)협동 회장), 오택(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5만원	행섭
2만원	재희(일산), 준호(청송)

종보달력찬조

1100만원	상돈((주)스타키보청기그룹 회장)
700만원	안효공종회(회장 무섭)
100만원	정이공파별좌공종회(회장 기섭), 광부((주)천연기업 회장), 오산시정공종회(회장 익섭)
60만원	여수종회(회장 재수)
50만원	광주금당산종회, 창원사복시정공종회(회장 재열), 청주종회(회장 상호), 광주두암종회(회장 현섭), 청헌공파공주중회(회장 명룡)
45만원	춘택
35만원	홍식
30만원	참판공파종회(당진), 경남정수종회(회장 광남)
25만원	재화, 재득
20만원	혁규, 은섭(광산종회), 광산종회, 좌승지공종회, 인기, 내자시판관공종회(회장 상영)
15만원	연보, 호섭(광주)
10만원	상동(진해), 언촌(수원), 진수, 의석, 기섭(서울), 재창, 상정, 광주송암종회, 문수, 재춘, 숙자, 근택, 상영(일산), 상달
60만원	리택
50만원	길수, 윤수, 학섭, 상근, 영희, 재권(김해), 회보, 우경(광주), 경보, 재근, 성진, 극택(서울), 춘길, 행섭(해운대), 우엽
30만원	자석, 효진, 수지, 규강, 연보, 규춘(인천), 옥환, 동식, 규선(인천), 재운
20만원	영우, 대섭, 재수, 해자, 재하, 상환, 진석, 재덕, 용근, 정식, 규태
100\$	상국(캐나다)
50\$	광택(캐나다), 상수(캐나다), 태섭(캐나다), 창섭(캐나다), 재환(캐나다), 용웅(캐나다), 우성(캐나다)
지로종보찬조	109,770원